미국 개신교회들이 동성혼을 찬성하게 된 과정 조사

전철민 PhD. (전 강남대학교)

요약

"미국 개신교회들이 동성혼을 찬성하게 된 과정 조사"는 미국 주요 6개 개신교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1967년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미국성공회(Episcopal Church),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남 침례교회(Southern Baptist Church), 연합 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및 유니테리언 만인구원론자협회(Unite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등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찬성하게 되었지를 '주제별・연대기별・교단별'삼중적인(threefold) 관점에서 정리한다.

연구가 진행되면서 애초에 생각한 것과 달리 찬성만이 아니라 반대해온 과정도 함께 대비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필요할 것 같아서 뒷부분에 반대해온 한 교단의 1976년 총회 결의안부터 최근의 총회 결의안 중 선별하여 다루었다.

지난 40년간의 미국 개신교단의 동성혼 과정의 상반된 입장을 대비하여 조사함으로써 보다 더 역동적인 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동성혼 세력의 저변에서 활동하고 있는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는 데에 이 연구 결과가 어느 정도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주제어 : 미국 개신교회, 동성애, 동성혼, 사랑, 인권, 평등.

I. 들어가는 말

우리 사회에서 동성애 문제는 어느 듯 동성결혼 문제로 심각하게 전환될 시점에 이르고 있다. 동성애에서 동성행위로의 전환이 황색에서 녹색으로 심화된 것이라면, 동성행위에서 동성결혼으로의 변화는 녹색에서 적색으로 변환되어 마치 동성애의 씨가 봄에 뿌려져서 싹이 나서 자란 후 여름에 녹음이 짙어진 후, 가을에 붉은 열매를 맺듯이 동성결혼은 곧 결실기를 거쳐서 재생산 단계로 진입하여 걷잡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를 것이다.

동성결혼에 관한 우리 사회의 현재 상황은 늦여름에서 곧 가을로 들어서기 직전인 것 같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교회와 사회 현상에서 가장 큰 영향을 받아왔다고 볼 수 있는 미국 개신교회의 동성결혼 문제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현재까지 이 분야에 대한 작업이 전무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우선 자료를 찾기에 많은 애로를 겪은 후에, 미국 주요 개신교단들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하였다. 10여개 교단의 홈페이지 중에서 유력한 6개 교단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여 동성애와 동성결혼

에 관한 연대기적 자료를 분류하는 데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번역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그보다 더 많았으며, 다시 그것들을 교단별로, 그런 다음에 이어서 주제별로 분류해서 최종적으로는 주제별, 연대별(timeline)로 정리하여 유사 사건들이 교단별로 가까이에서 볼 수 있도록 정리하였으나 흡족하지 못한 것은 방대한 자료에 비하여 한정된 시간과 담을 공간의 제약 때문이었다. 본 글에 실은 자료는 조사자가 수집한 자료의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다.

본 조사자는 각 교단들이 동성애 허용을 시작으로 동성결혼을 찬성하기까지에 대한 자료수집뿐 아니라, 2015년 6월 26일 미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데에 교회들이 직간접적으로 미친 영향과 미국 사회에서 게이들의 활동과 투쟁, 그리고 에이즈 발생과 다수의 주류교회들이 그들의 활동에 적극적 참여함으로써 동성결혼 문제가 걷잡을 수 없을 만큼 확산되어 이제는 그 대세를 어느 누구도 돌이킬 수 없게 된 배경 등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는 본 글의 주제에 한정하여 진술하되, 본 조사의 특성상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음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로, 본 조사의 특성상 모든 자료는 온라인으로 미국성공회(Episcopal Church), 미국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남 침례교회(Southern Baptist Church),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및 유니테리언 만인구원론자협회(Uniterian Universalist Association)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수집한 1차 자료로써 각 인용 자료 하나하나에 웹주소를 각주에 달았다.

둘째로, 또 다른 특성상 자료 인용에 조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하고 객관적 진술을 위하여 직접 번역하되 가능한대로 의역을 피하고 직역하였다.

셋째로, 주제별 서술 말미에 조사자의 분석결과를 종합적으로 간략하게 개진하였으며 결론 부분에 조사내용 전반에 대한 조사자의 신학적인 의견을 적어서 조사내용의 의미를 피력하였다.

II. 다수의 미국 개신교회가 동성결혼 찬성으로 돌아선 과정

이 장에서는 시종일관 동성애 및 동성결혼에 반대해 오고 있는 남 침례교회 외 5개 교회의 찬성과정을 다루되, 연합감리교회는 교회법으로는 계속해서 반대 입장을 유지해 오고 있으나 실제로는 찬성하고 실행하는 게이 목사들과 심지어 감독직에 선출된 게이 목사도 용인하는 이중적인 형태를 보여 온 주요 사건들을 열거하고 있다.

조사자는 미국 개신교회가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찬성하기 전 상황을 다음 설문조사를 기점으로 보게 되었다.

1967년 3월, 유니테리언 만인구원론자협회(Unitarian Universalist Association, UUA)[1]의 '목표 위원회'(Committee on Goals)는 교단 내의 동성애에 대한 신앙과 태도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다음과 같이 발표했다. “회중들의 7.7%는 동성애가 법으로 저지되어야 한다. 80.2%는 법이 아니라 교육으로 저지되어야 한다. 12%는 법으로도 교육으로도 저지되어서는 안 된다. 0.1%는 권장되어야 한다.”[2)]

1969년 4월 12일, 연합그리스도교회(United Church of Christ, UCC)의 ‘기독교인 사회활동 심의회’(the Council for Christian Social Action)에서 ‘합의에 의한 성인들 간의 사적인 동성관계를 범죄로 만드는 모든 법들을 반대하며, 그 법들을 폐지하도록 촉구한다.’고 결의하였다.[3)]

1970년 7월, UUA 총회에서 동성애자들과 양성애자들에 대한 차별 중단을 결의하고, 전 회중들에게 모든 형태의 성을 향해 건전한 태도를 갖도록 장려하는 성교육을 개발하도록 요청했다.[4)]

1972년 4월, 조지아 애틀랜타(Georgia, Atlanta)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United Methodist Church, UMC) 총회에서 남부 인디아나(South Indiana) 총대 러셀 키블러(Russell Kibler)가 발언대 앞으로 나와서 한 가지 질문을 하기 전까지 이 교단 최고 헌법기관의 동성애자들에 관한 성명은 다음과 같았다.

> “동성애자들은 이성애자들보다 조금도 못하지 않다. 그들은 하나님과 다른 사람들 및 자기와의 화해 관계를 가능케 하는 교제의 영적·정서적 보살핌과 더불어, 인간의 완성을 위한 투쟁에 있어 교회의 목회와 지도가 똑 같이 필요하다. 나아가,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키블러가 알고자 한 것은 “동성애자들이 인간의 권리와 시민의 권리를 보장받을 자격이 있다”는 뜻이 무엇인가였다. 그의 질문으로 인해 이 교단의 동성애에 관한 논쟁이 공식적으로는 처음으로 시작되었고, “연합감리교회는 동성애 행위를 용인하지 않으며 이러한 행위는 기독교의 가르침과 양립할 수 없다.”는 문구를 ‘규정집’(The Book of Discipline)에 추가함으로써 마감되었다.[5)]

1967년에 UUA가 설문조사한 당시만 해도 동성애 문제에 앞장 선 것으로 추정되는 UUA 교단 내에서 89.9%가 동성애는 저지되어야 한다고 여긴 것으로 보아서 그 이전에는 동성애 문제가 일반화 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문조사를 했다는 자체가 어느 정도 동성애 문제가 교회 내에서 수면으로 부상하고 있었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1969년 연합그리스도교회가 성인들 간의 합의에 의한 사적인 동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모든 법의 폐

---

1) UUA는 스스로를 이단이라고 말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믿지 않기 때문에 삼위일체를 부정할 뿐 아니라, 스스로 예수와 인간 본성에 대하여 자유주의 기독교 관점들을 지니고 왔으며 유신론, 무신론, 불가지론, 휴머니스트, 이교도, 기독교, 유대교 및 불교를 포괄하는 걸쭉한 다원주의(rich pluralism)라고 자처한다.
http://www.ucsummit.org/wordpress/visitors/uu-history/#.WP90RYjyhdh
2) http://queering-the-church.blogspot.kr/2011/12/james-stoll-unitarian-pioneer-of-lgbt.html
3) http://uccfiles.com/pdf/1969-RESOLUTION-ON-HOMOSEXUALS-AND-THE-LAW.pdf
4) http://www.uua.org/lgbtq/witness/policy/timeline
5) http://www.umc.org/news-and-media/gc2016-tackling-44-year-stance-on-homosexuality

지로 촉구한 것으로 보아 이 때부터 진보적인 교회에서 동성애지지 움직임이 시작되었으나, 연합감리교회가 1972년에 동성행위를 기독교의 교훈과 양립할 수 없다고 자체 교회 규정집을 강화함으로써 그 교단은 동성애 확산을 차단하였다.

1. 무한한 사랑과 인권(Human right)

1972년 이래로, 연합감리교회 규정집은 “동성결합 예식들”을 주관하는 것과 성직자가 집례하는 것을 금한다.[6] 연합감리교회는 UUA와 달리 성경이 동성행위를 죄로 규정한 것을 받아들인다. 그러나 앞으로 보게 되겠지만 시대의 흐름 속에서 실제 삶에서는 이탈행위가 발생하여 교리는 고수하되 현실 상황에 어느 정도 부응하는 이중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1976년, 미국 성공회(the Episcopal Church, EP)[7] 총회는 “동성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교회의 사랑과 포용, 그리고 목양적인 배려 및 돌봄에 관하여 모든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평등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1976-A069)고 선언하였다. 그 이후로 신실한 성공회 교인들(Episcopalians)은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들'[8]로 철저하게 포함하고 더 위대하게 이해하는 방향으로 노력해 왔다. 그 길을 따라서 성공회는 수많은 주의를 기울여 왔으며, '인테그리티 USA'(Integrity USA)[9]와 같은 기관들의 도움으로 성공회 교회는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 및 성전환자(LGBT)를 성공회 교인들로 온전히 받아들이는 노력을 계속해 오고 있다.[10]

1977년, 미국 장로교회(Presbyterian Church USA) 제189차 총회는 교회가 LGBT 시민들을 그들의 시민적 해방들과 평등한 권리들 및 사회적·경제적 차별로부터 법의 보호 등에 관하여 정당한 대우를 받도록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하였다.[11]

이듬해 1978년, 제190차 총회는 LGBT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의 시민적 생존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들에로 평등한 접근이 가능하도록 요청한다. 이 총회는 어떤 사람에게 그러한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윤리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고 연이어 선언한다.[12]

1996년 11월 4일,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에서 모인 연합그리스도교회의 ‘국내 목회 이사회’(Board for Homeland Ministries)에서 동성커플의 평등결혼 권리들이 채택되었다.[13]

---

6) http://www.umc.org/what-we-believe/human-sexuality-backgrounder

7) 미국 성공회는 영국 성공회(Anglican Church)에서 분리되어 나왔다. http://www.episcopalchurch.org/page/history-episcopal-church UUA와 함께 미국 사회에서 동성혼을 주도하는 쌍두마차 역할을 해왔다. 실제 이 두 교단은 연합사역을 해오고 있다.

8)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은 비성경적이다.

9) '인테그리티 USA'는 성공회 소속 LGBTQ 기관으로서 40년 이상 성공회의 모든 부분에서 LGBTQ 사람들의 완전한 평등을 위해 일해오고 있다. http://www.integrityusa.org/welcome

10) http://www.episcopalchurch.org/page/lgbt-church

11)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wp-content/uploads/TheGlobalCrisisforPeopleWhoAreLGBTandTheirFamilies.pdf p10, Human rights.

12) ibid., 9.

2003년, 연합그리스도교회 제14차 총회는 성전환자들을 교회생활과 리더십에서 완전히 포용하는 결의를 공식적으로 추가하였다.[14]

2015년 6월 30일, 오하이오 클리블랜드(Ohio Cleveland) 제30차 연합그리스도교회 총회는 성적지향이나 성정체성 및 성적표현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완전한 법적 시민권리를 보장하는 총회의 서약을 재확인한다.[15]

동성애 또는 동성혼은 1976년 미 성공회 총회에서 선언한 대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1977년 장로교회 총회의 동성애지지 선언에서 보듯이 인간 본연의 '인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인식에 깊이 뿌리내려져 있다. 문제는 그들이 인식하고 주장하는 사랑이 성경이 계시하고 있는 바른 사랑이냐 라는 것과 또한 그들이 강력하게 내세우는 동성애자들의 인권이 하나님의 공의와 사회의 정의에 기반하고 있는 인권인가를 분명하게 밝히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는 것은 동성애를 지지하는 편이나 반대하는 편 모두 동일한 성경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문제는 어느 편의 해석이 하나님의 입장에 서있는가를 분별하여 밝히는 것과 동시에 성경외적인 증거, 곧 자연적(과학적)·사회적(윤리적)인 객관적 보편성과 개인의 인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설득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2. 성직자와 동성애 및 동성결혼

1969년 9월 5일, UUA의 제임스 L. 스톨(James L. Stoll) 목사가 '학생 자유 신앙학회'(Student Religious Liberals Conference)에서 공개적으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선언하여 미국과 캐나다 모든 종교단체를 통 털어 최초로 안수 받은 동성애 목사가 되었다.[16]

1972년, 연합그리스도교회가 개신교 주류 교단 최초로 동성애자인 윌리엄 R. 존슨(William R. Johnson) 목사를 공개적으로 안수하였으며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결혼을 확인하는 최초의 교파가 되었다.[17]

1977년, 미국 성공회가 교단 최초로 게이 사제를 공개적으로 안수하였다.[18]

2003년 7월, 미국 성공회는 진 로빈슨(Gene Robinson)을 뉴햄프셔(New Hampshire) 교구의 주교직으로 선출했는데, 그는 미 성공회에서 공개적으로 안수 받은 첫 게이 성직자

---

13) http://www.ucc.org/lgbt_statements
14)http://uccfiles.com/pdf/2003-AFFIRMING-THE-PARTICIPATION-AND-MINISTRY-OF-TRANSGENDER-PEOPLE-WITHIN-THE-UNITED-CHURCH-OF-CHRIST-AND-SUPPORTING-THEIR-CIVIL-AND-HUMAN-RIGHTS.pdf
15) http://uccfiles.com/pdf/GS30-Minutes-Final.pdf p66-67.
16) ibid.
17) http://www.ucc.org/marriage_equality_and_lgbtq_rights
18) http://www.nytimes.com/1989/12/17/nyregion/openly-gay-priest-ordained-in-jersey.html

가 되었다.[19]

2004년 5월 17일: 미국에서 처음으로 합법적인 동성결혼 커플이 탄생하였다.[20]
같은 날, UUA 총회장 윌리엄 G. 신크포드(William G. Sinkford) 목사가 합법적으로 힐러리(Hillary)와 동성 결혼하였다.[21]

2005년 7월 4일, UUA 제25차 총회는 회중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결혼"을 확정하도록 격려하고, 커플의 성(gender)에 기초하여 차별하지 않는 결혼예식 정책들을 고려하도록 격려하였다.[22]

2005년 12월 31일, 연합감리교회 동부 펜실베이니아(Eastern Pennsylvania) 연회의 사법위원회(Judicial Council)가 공개한(self-avowed) 레즈비언 아이린 엘리자베스 스트라우드(Irene Elizabeth Stroud) 목사를 복직시켰다.[23] 이는 연합감리교회의 법에 위배되는 것이지만 논란 끝에 법보다는 현실과 타협한 것이다.

2010년 7월 8일, 장로교 총회는 노회들에게 동반자가 있는 동성애자들의 안수 제한 규정을 제거하기 위한 헌법수정 안건을 통과(찬성 373 대 반대 323)시키면서 독신이 아닌(non-celibate) 게이들의 안수를 승인하였다. 이 조치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12개월 내에 173개 노회 이상의 다수로 비준되어야 한다. * 2011년 5월 10일, 노회들의 다수 표결로 그 헌법 수정이 승인되었다.[24]

2012년, 뉴욕에서 열린 성공회 총회는 '본 교회 안에서 인종, 피부색, 종족기원, 민족기원, 성, 결혼상태, 성적지향, 성정체성 및 성 표현, 장애 또는 나이, 그 외에 이 법규들에서 예외로 정한 것이 아니라면 그것들로 인해 누구도 어떤 목사직, 평신도 또는 안수직을 위한 검증과정 절차를 받는 것을 거부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수정법규 III.1.2(목사직 검증과정 절차)를 통과시켰다.[25]

2013년 12월 12일, 연합감리교회 샌안토니오(San Antonio) 지역 감독 제임스 E. 도프(James E. Dorff)는 동성애 목사 후보 메리 앤 바클레이(Mary Ann Barclay)를 안수 절차에서 제외시키려는 결정을 번복시켰다.[26]

2016년 5월 9일, 500명의 LGBTQ 성직자들 - 수많은 타 교단 소속 미래 목사들과 신

---

19) http://www.episcopalchurch.org/library/article/bishops-approve-procedure-robinson-consent
20) 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5/heres-a-look-back-at-the-first-gay-couples-to-get-married-in-america/371079/
21) http://www.uua.org/lgbtq/witness/policy/timeline
22) http://www.ucc.org/worship/pdfs/323_346i_order-for-marriage-inclusive.pdf
23) http://www.umc.org/decisions/41940
24) http://www.pcusa.org/news/2011/5/10/presbyterian-church-us-approves-change-ordination/
25) https://www.episcopalarchives.org/cgi-bin/acts/acts_resolution.pl?resolution=2012-D002
26)http://www.umc.org/news-and-media/bishop-rules-lesbian-clergy-candidate-can-stay-on-ordination-track

앙 지도자들 - 이 공개적인 편지에서 “많은 사랑과 빛”(much love and light)을 5월 9일에 커밍아웃한 111명의 연합감리교회 성직자와 후보자들에게 바쳤다.

> “비록 우리들은 서로 다른 전통에서 나왔지만,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의 가족이고, 공통된 투쟁 가운데 충분히 진정으로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정체성과 부르심 안으로 들어가는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라고 적은 이 편지는 웹 사이트 ‘Believe Out Loud’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려졌다. 이는 기독교인들에게 레즈비언, 게이, 양성애자, 성전환자 및 퀴어나 성정체성에 의심을 품은 자(LGBTQ)들의 평등을 위해 노력하도록 힘주기 위한 곳이다.[27]

위에서 살펴 본대로 미 개신교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도한 사람들은 평신도들이 아니라 성직자들이었다. 물론 평신도들의 동성애 활동은 성직자들에 비하여 겉으로, 특히 기록으로, 드러나지 않았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통계에 의하면, 미국 개신교회의 성직자 대 평신도 인구비율은 아주 적게 잡아도 1:200 정도가 넘는다. 이 사실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는데, 한 가지는 성직자 한 명의 커밍아웃이 있었다면 평신도들의 동성애자들은 200명 정도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개연성은 현실적으로 전혀 타당할 수 없다. UUA는 전교인이 모두 LGBT이기를 목표로 삼고 활동하고 있으며, 2006년 6월에는 “미국 내 모든 UUA 회원들의 50%가 LGBT(Welcoming Congregations)이었다.”[28]고 한다. 이 교회의 성직자 대 평신도의 비율을 산정해 보면 1:50이니, 1:200에 1/4 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외형적인 통계 말고, 윤리적이며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성경에서나 일반적인 잣대에서 이성애 행위는 정상적이고, LGBTQ는 예외적이다.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요구하여 미연방대법원에 항고해 헌법을 수정하면서까지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들은 자기들의 주장이 결코 이성결혼을 비정상적인 것으로 폄하할 의도는 전혀 없다고 호소하였다. 자기들의 주장은 자기들이 법적으로 불이익을 받아서 심리적 물리적으로 너무나 괴로우니 이성혼자들과 똑같은 평등한 결혼권리를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다. 이 점이 5명의 대법관 특히 Kennedy 대법관이 반대자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그들의 손을 들어주는 데에 중요한 하나의 전환점이 된 것으로 보인다.[29]

이상의 두 가지 관점이 틀리지 않았으며 전해져오고 있는 기록들을 보면, 미 개신교회의 동성애, 최소한 동성결혼은 해당교회의 성직자들이 주도했다고 볼 수 있다.

3. 동성결혼

이 절은 위의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주도한 성직자들의 영향 하에 확산되어 간 것으로

---

27) http://www.umc.org/news-and-media/111-clergy-clergy-candidates-come-out-as-gay
https://www.believeoutloud.com/
28) http://www.uua.org/lgbtq/witness/policy/timeline
29) 미연방대법원 판결문 중 'OBERGEFELL v. HODGES p4, Opinion of the Court',
https://www.supremecourt.gov/opinions/14pdf/14-556_3204.pdf

간주할 수 있다. 만일 평신도 동성결혼 주장자들이 주도하였다고 한다면 성직자들의 윤리와 영성이 평신도들보다 결단코 더 낫지 않았다는 평가를 스스로 내려야 하지 않을까?

2000년, 성공회(EP) 제73차 총회의 회원들은 인간의 성에 관한 문제들이 미해결 상태인 것을 인지하고 있다고 결의 했지만, 이미 현재 그리스도의 몸 안과 이 교회 안에 결혼상태로 살고 있는 커플들이 있고, 또 다른 평생을 서약한 관계들로서 그리스도의 몸과 이 교회 안에 살고 있는 커플들도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그러한 관계들이 정절, 단혼, 상호애정과 함께 서로 존중하고 주의 깊으며 정직한 교제로 특징지어질 것이라는 기대로 결의한다. 그리고 그러한 관계들 가운데 있는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가능한 거룩한 사랑으로 드러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다양한 방면의 논쟁적인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결혼의 성스러움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인정하는 반면에, 서로 다른 경험들과 관점들을 가진 사람들 간에 대화를 촉진할 임무를 재확인한다.[30]

2004년, UUA의 '당면과제 증언 위원회'(Immediate Witness)는 "시민결혼은 시민권리이다"(Civil Marriage is Civil Right)라고 확정하고, 동성커플을 결혼으로부터 막는 어떤 미연방헌법도 반대하였다.[31]

2004년 5월 17일, 케임브리지(Cambridge)는 매사추세츠에서 동성커플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한 최초의 시였다(2004 .5. 17.). 밋 롬니(Mitt Romney)가 당시 주지사였다. 그는 게이 결혼에 반대했는데, 그것은 당시 미국인의 대다수를 따른 것이었다. 2004년 5월에 미국인 55%는 게이 결혼이 합법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32]

2004년, 제216차 장로교 총회는 '변혁하는 가족들'(Transforming Families)이라는 정책을 승인하였는데, 이 정책은 "교회가 성(gender), 나이, 계층, 능력, 종족기원, 성적지향 등 어떤 외적 조건에 근거하여 다른 사람들보다 어떤 사람들을 더 높게 평가하는 태도들이나 행위들을 거절하는 비전을 바라보고 끝맺는다."[33]

2006년 6월, 미국 성공회[34]는 연방정부, 주정부 및 지방정부가 동성커플들에게 "게이가 아닌 결혼커플들이 누리는" 것들과 같은 후원들을 제공하도록 요청하였고, "동성 시민의 결혼이나 동성 시민연합들을 금지하는 어떠한 주 헌법이나 연방헌법도 반대하였다." 이는 "게이와 레즈비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시민권리를 가진 자들이라고 한 역사적 지지"가 발전한 이 교회의 입장이다.[35]

---

30) https://www.episcopalarchives.org/cgi-bin/acts/acts_resolution-complete.pl?resolution=2000-D039

31) http://www.uua.org/action/statements/oppose-federal-marriage-amendment

32)https://www.theatlantic.com/politics/archive/2014/05/heres-a-look-back-at-the-first-gay-couples-to-get-married-in-america/371079/

33) ibid., 10.

35)http://www.episcopalchurch.org/library/article/columbus-bishops-discuss-civil-rights-reconciliation-and-windsor-resolutions

2016년 6월 23, 오하이오 콜럼버스(Ohio, Columbus)열린 총회에서 우리의 성전환자와 성불일치 가족(Gender Non-Conforming Family) 혐오를 멈추고, 보호하며 지원할 것을 결의하였다.[36]

4. 결혼예식

2005년 7월 4일, 연합그리스도교회 제25차 총회는 회중들이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결혼권리”를 확정하고, “커플들의 성에 근거한 차별을 하지 않는 혼례 방침들”을 검토하도록 하였다.[37]

2012년, 미성공회 총회는 다음과 같이 동성 간의 결합들을 축복하는 잠정적인 예전을 승인하였는데, 이는 지방 주교의 허락 하에 수행될 수 있다. “내가 네게 복을 주니, 너는 복이 될 지어다”는 예전은 교회의 권위를 수행하는 주교의 지시와 허락 하에 2012년 강림절 첫 번째 주일부터 시작된다. 주교들은, 특별히 동성결혼, 시민적 결합들 또는 동거관계들이 시민 사법부에서 합법화된 교구 내에 있는, 본 교회의 회원들의 필요에 관대하게 목양적인 응답을 한다.[38]

2014년 6월 19일, pcusa 미시건, 디트로이트(Detroit, Michigan) 제221차 총회는 ‘게이 결혼이 합법적인 주(States)에서 목사들이 동성결혼식을 집전하도록 허락하는, 결혼의 정의를 바꾸는’ 산하기관 ‘사회연합’(Civil Union)과 ‘결혼문제 위원회’(Marriage Issues Committee)의 건의안을 승인하여 ‘찬성 371 대 반대 238’로 통과시켰다.[39]

2015년 2월 12일, 수많은 종교단체를 포함한 개신교 연합교단이 미연방대법원에 조언자 의견서(A Brief of Amici Curiae, 2015. 3. 6.)를 제출하기 불과 한 달 전에, 장로교회는 한 위원회에서 “‘공개한 동성행위 게이’ 성직자나 게이 결혼식을 집례한 성직자를 처벌하는 교회법령을 폐지하는” 안건을 확정하였는데, 이 안건은 5월에 투표에 부쳐질 예정이다.[40]

2015년 6월 26일, (미국) 장로교회는 미국연방대법원이 14개 주들(States)의 금지안들을 각하시키면서, 동성커플들이 전국에 걸쳐 결혼할 수 있는 헌법적 권리를 결정한 것에 대하여 경축한다. 교회 지도자들은 오늘의 판결이 사회의 견해들이 최근 몇 년간 계속해서 변화함에 따라 바른 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믿는다.[41]

---

36) https://www.uua.org/sites/live-new.uua.org/files/ga_final_minutes_012717.pdf p5
37) http://www.ucc.org/worship/pdfs/323_346i_order-for-marriage-inclusive.pdf
38) https://www.episcopalarchives.org/cgi-bin/acts/acts_resolution-complete.pl?resolution=2012-A049
39) http://www.pcusa.org/news/2014/6/20/press-release-presbyterian-church-us-general-assem/
40) https://sblog.s3.amazonaws.com/wp-content/uploads/2015/03/14-556-episcopal-church.pdf
Nos. 14-556, 14-562, 14-571, 14-574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No. 14-556 p13, 주22.
41) http://www.pcusa.org/news/2015/6/26/pcusa-celebrates-supreme-court-decision-same-gende/

5. 고용 평등

1985년, 연합그리스도교회 총회(General Synod)에서 성적지향과 관계하여 고용 및 자원봉사와 회원 정책에 차별을 두지 않도록 하고, 교단 내 회중들이 신앙공동체 안에서 레즈비언과 게이 및 양성애 성지향자들을 차별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결의를 하였다.[42]

1987년 6월, UUA 총회 사업국은 회원들에게 차별 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기관들의 제품들과 서비스들을 보이콧하는 것을 포함하여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의 권리들을 제한하는 법령을 전복시키는 활동을 함으로써 게이들과 레즈비언들을 위한 법적 평등을 지지하도록 요청하였다.[43]

2007년 6월, UUA 총회는 '당면과제 증언 위원회'가 '성전환자 포용 및 보호'(Transgender Inclusion and Protection)기관과 더불어 'H.R, 2015 법', 즉 '차별 없는 고용행동'(the Employment Non-Discrimination Act)이 의회에서 즉각 발동하도록 지원하는 발표를 하였다.[44]

2007년 12월 18일, UUA는 월마트(Wal-Mart)의 배당수익주주(beneficial owner of shares)로서 월마트가 성정체성에 근거하여 고용에서 차별을 금지하는 정책을 다가오는 정기주주총회에서 명백하게 결의하기를 요청하는 서한을 발송하였다.(PDF).[45]

동성애 행위 혐오와 차별 철폐를 주장하는 당사자와 동성결혼을 갈망하여 끝까지 관철하려고 투쟁한 자들의 공통점 중 한 가지는 그들 모두 그들의 입장이 경제적인 생존문제와 직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성애자보다는 동성결혼 주창자들이 훨씬 더 재정적 현실을 타개할 필요를 절감한 것 같다.

6. 분열과 일치

2016년 7월 15, 샌프란시스코(San Francisco) 소재 글라이드 메모리얼 교회(Glide Memorial Church)의 담임목사 카렌 올리베토(Karen Oliveto)가 서부 관할 회의(the Western Jurisdictional Conference)에서 대의원에 의해 공개적으로 처음 레즈비언 연합감리회 감독으로 선출되었다.

Oliveto의 선거 직후 발표 한 성명에서, 감독 브루스 R 오우(Bruce R. Ough) 연합 감리위원회 회장은 "이번 선거는 교회 정책과 일치에 관하여 상당한 우려와 의문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그는 감독위원회가 선거에 개입하는 헌법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이 상황을 매우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

42) http://www.ucc.org/justice_sexuality-education_a-selected-chronology-of
43) http://www.uua.org/action/statements/supporting-legal-equity-gays-and-lesbians
44)http://www.uua.org/action/statements/pass-employment-non-discrimination-act-transgender-inclusion-and-protection
45)http://www.uua.org/sites/live-new.uua.org/files/documents/finance/shareholderadvocacy/071218_walmart.pdf

그는 교회내의 어떤 사람들은 이 선거를 교회법의 침해로 보고 분열을 향한 심각한 발걸음 이라고 볼 것이나, 또 다른 사람들은 더 포용적인 교회를 향한 이정표로 여길 것이라고 인지하였다.[46]

태평양 연안 북서부에서 최대 규모의 컨벤션센터인 오리건 컨벤션센터(Oregon Convention Center)에서 열린 연합감리교회 2016년 총회(5월 10-20일) 대의원들은 그 동안 4년에 한 번씩 토론한 인간의 성문제에 관해, 이번에는 이 문제를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인간의 성문제에 관한 토론을 보류하고 새롭게 만들어질 위원회에 이 문제를 넘기도록 하자는 총감독회의의 건의안을 받아들이기로 5월 18일 늦은 오후 결정한 것이다.

이 건의안을 발표하면서 총감독회의의 의장인 브루스(Bruce) 감독은 “우리는 연합감리교회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받아들여서 연합감리교회를 기도의 시간으로 인도하고자 한다.”라며, 또한 “입법 활동을 통해 해결책을 찾으려는 노력을 잠시 멈추고, 우리의 미래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의도적으로 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감독들은 또한 이러한 안건들을 다루기 위한 특별총회를 2018년 또는 2019년에 소집할 수도 있다는 것을 말했다.[47]

동성결혼에 관한 문제는 그 어떤 문제들보다도 더 심각한 분열을 일으켜 왔다. 그러나 그 분열을 타개하는 방안은 서로 다른 방향들로 진행되었다. 연합감리교회의 경우는 교단 내에 팽배한 갈등과 분열 위기를 성경에 기초한 교회법을 고수하는 한편, 현실적으로 그 법을 위배하더라도 처벌하지 않으며 법 개정을 요구하는 상당수의 사람들에게는 일치를 강조하면서 지난 2016년 총회에서 표출된 것처럼 논의 자체를 미루는 것이다.

다른 한 경우는 장로교회의 경우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서서히 대세를 따르는 것이다. 그리고 유니테리언과 성공회 및 연합그리스도교회에서는 초기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내세우는 동시에 개인에게 절대적이고 본질적이며 실존적인 생존권을 부여하여 어떤 형태의 차별도 인정하지 않는 방향을 추구했다. 이들의 공통점은 원죄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속도 받아드리지 않으며, 하나님의 엄밀한 심판도 인정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시고, 회개와 성결한 삶을 명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받아 순종하려는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7. 기타

1992년 6월, UUA 이사회는 게이와 무신론자인 스카우트들과 그 지도자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미국 보이스카우트의 차별정책을 반대하는 성명을 내도록 결의하였다.[48]

---

46) http://www.umc.org/news-and-media/western-jurisdiction-elects-openly-gay-united-methodist-bishop
47) http://www.koreanumc.org/news/gc2016-5-18-wrap-up
48) http://www.uua.org/lgbtq/witness/policy/timeline

1993년 6월, UUA 총회 산하 '당면과제 증언 위원회'는 공개한 레즈비안, 게이 및 양성애자들의 군복무 수락을 찬성하도록 결의하였다.[49]

그러나 한 달 뒤인 1993년 7.19일에 빌 클린턴 대통령은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alk)는 커밍아웃하지 않는 이상 동성애자도 군복무 가능하다는 행정법을 공포하였다.[50]

1994년 6월, UUA의 '당면과제 증언 위원회'는 공립학교들 내의 성교육과 관련하여 공적인 성교육이 포용적이며, 편향되지 않고, 최신식이면서 모든 성적 지향들을 포함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51]

1977년 6월, UU 총회 사업국이 게이들을 대항하는 네거티브 선전활동에 대해 투쟁할 것을 결의함.[52]

1986년 6월, UU 총회에서 회원들에게 교육과 지지(advocacy)를 통하여 AIDS 차별을 중지시키도록 요청하는 결의를 하였다.[53]
cf 1981년: 미국에서 에이즈 위기 발발 '주요 과정' p1 1988년 7월, 캐나다 온타리오의 UU 목사인 마크 모셔 드울프(Mark Mosher DeWolfe)가 AIDS로 사망하였다. 1992년까지 AIDS로 미국 내에서 229,205명이 사망함.[54]

1989년 6월, UU 총회 사업국은 회원들 내에서 동성애 혐오와 투쟁하고 개별 회원들을 교육하도록 '완전한 수용 프로그램'(The Welcoming Congregation Program)을 채택하도록 결의하였다.[55]

2007년 6월, UUA 총회 '당면과제 증언 위원회'는 성적지향 문제들과 관련한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on't Ask, Don't Tell)는 정책 폐지를 촉구하였다. "묻지도 말하지도 말라"(DADT)는 2011년 9월에 폐지가 발효되면서 공식적으로 끝났다.[56]

2014년 pcusa 제221차 총회는 도처에서 점증하고 있는 LGBT 자매들과 형제들의 위협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LGBT 자매들과 형제들을 기도를 계속하며 격려한다.
(2) '장로회 선교국'(the Presbyterian Mission Agency)이 심각한 글로벌 LGBT 상황에 대

---

49)http://www.uua.org/action/statements/acceptance-openly-lesbian-gay-and-bisexual-persons-united-states-military
50)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7/19/bill-clinton-dont-ask-dont-tell_n_3623245.html
51) http://www.uua.org/action/statements/sexuality-education-public-schools
52) ibid.
53) ibid.
54) http://www.uuworld.org/articles/stub-2026
55) http://www.uua.org/lgbtq/welcoming/program
56) http://www.huffingtonpost.com/2013/07/19/bill-clinton-dont-ask-dont-tell_n_3623245.html

한 교육적인 자료들을 창안하도록 격려한다.
(3) 교회 회중들이 LGBT 난민들과 망명신청자들에게 성소, 안전 및 지원 준비에 착수하도록 격려한다.[57]

동성애와 동성결혼의 문제는 한 가정의 출발로부터 시작하여 학교, 군대, 직장 등 사회 전반과 국가, 그리고 선교현장과 결부하여 국제적인 문제로 퍼져나가고 있다.

III. 시종일관 반대하여 온 교단

본 글의 제목은 “미국 개신교회들이 동성혼을 찬성하게 된 과정 조사”이다. 따라서 동성결혼을 찬성하지 않고 반대해온 미국 개신교단의 이야기를 비중 있게 다룬다는 것은 본 주제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같아 보인다. 필자의 본래 의도도 반대에서 찬성으로 돌아선 과정을 추적하여 정리하려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사하는 과정에서 분열이나 내부적인 갈등이 거의 표출되지 않고, 굳건하게 적극적으로 미국 종교계와 국가사회에서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해온 ‘남 침례교회’의 반대과정을 추적하면서 대다수의 찬성과정뿐 아니라 소수의 반대과정을 어느 정도 비중 있게 다루어 대비시켜 보는 것이 앞으로 한국교회와 국가사회에 불어 닥칠 유사사태 대비에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 여기게 되었다.

이 교단뿐 아니라 다른 교단들 중에도 그 교단의 대다수가 반대 입장에 서있는 교단들이 없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국제연합오순절교회(The United Pentecostal Church International, UPCI)의 경우, 동성애 행위에 분명하게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2015년 6월 26일의 미 연방대법원 판결을 반대하는 의사도 표현했다. 그러나 그 홈페이지에 수차례 접속하였지만, 그 대법원 판결에 반대하는 PDF 파일 하나 밖에는 찾아볼 수 없었다. 그 외에 연합복음주의루터교회(The United Evangelical Lutheran Church)를 비롯한 몇 루터란(Lutheran) 교단에 접속하였으나 그들의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으며 자료도 충분하지 않았다.

그에 비하여 남 침례교회는 1967년 이후로 풍부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잘 수록해 놓고 있으며 동성애와 동성결혼에 관련된 다양한 문제들을 세밀하게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명백하게 피력하고 있다.

위에서 살펴본 대로 미 개신교 주요교단 6개 중 4개 교단들은 동성혼 찬성으로 돌아섰고, 연합감리교회는 교회법으로는 동성애 및 동성결혼을 그대로 반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대세의 흐름을 따라 타협하고 있다. 그들이 1972년 이래로 공식적으로는 동성애와 동성결혼을 반대하고,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의 결혼”을 고수하고 있으나, 교단 내에 커밍아웃한 상당수의 성직자들의 처벌을 외면하고 있는 것을 앞에서 보았다.

---

57)https://www.presbyterianmission.org/wp-content/uploads/TheGlobalCrisisforPeopleWhoAreLGBTandTheirFamilies.pdf

이제 미국 개신교회 중 가장 많은 회원을 보유하고 있는 남 침례교회(Southern Baptist Church)의 동성애와 동성혼 반대과정을 1976년 버지니아(Virginia)주 노퍽(Norfolk)에서 열린 총회부터 2016년 미주리(MO)주 세인트루이스(St. Louis) 총회까지 우리의 주제에 관한 총회 결의안들 중 주목할 만한 것들을 선별하여 우리 결가연의 활동에 타산지석으로 삼을 뿐 아니라, 그들의 강력한 반대활동의 한계를 분석하여 그들의 미흡했던 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앞으로 닥아 올 큰 전투에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다방면의 세밀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으로 전망한다.

1. 1976년 버지니아 노퍽 총회의 동성에 관한결의안

동성애가 사람들 사이에서 공개된 생활형태로 증가해 오고 있는 사실을 보고, 동성애에 관한 신앙적이고 윤리적인 차원들에 주의력이 집중되어 왔으며, 모든 윤리적인 질문들과 쟁점(issues)들을 성경적 진리의 빛으로 가져오는 것이 기독교 공동체의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 버지니아 노퍽에서 모인 남 침례자(the Southern Baptist) 총회 메신저들(messengers)은 동성애 행위와 죄에 관하여 성경적 진리에로 우리의 헌신을 확정할 것을 결의하였다. 더 나아가서, 이 총회는 목사들을 임명하는 것은 지역교회의 자율인 것을 인정하면서, 교회들과 대리자들이 임명, 채용 또는 정상적인 생활양식의 다른 지정들을 통하여 동성애 행위를 어떤 정도로도 인정하여 조장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다.[58]

2. 1980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Missouri St. Louis) 총회의 동성에 관한 결의안

우리 총회는 모든 동성애 행위들과 어떤 성격의 부자연스러운 관계들 및 성도착 등이 우리 사회에 나타나서 확산되는 것을 한탄하면서 그러한 행위들은 죄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죄된다는 남 침례교도들의 전통적인 입장을 재확인한다.[59]

3. 1985년 텍사스 댈러스(Texas, Dallas) 총회의 동성에 관한결의안

우리는 성경이 그와 같은 행위들을 죄로 정죄하는 한 편, 성경은 또한 회개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용서와 변화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다.[60]

4. 1988년, 텍사스 샌안토니오(Texas, San Antonio) 총회의 동성에 관한결의안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표준의 도착(perversion of divine standards)이며 자연과

58) http://www.sbc.net/resolutions/606/resolution-on-homosexuality
59) http://www.sbc.net/resolutions/608/resolution-on-homosexuality
60) http://www.sbc.net/resolutions/609/resolution-on-homosexuality

자연적인 열정에 대한 폭행이기에 한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반면에, 동성애는 정상적인 생활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인들과 같이 동성애자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성경의 명령을 확인한다(고전6:9-11).[61]

5. 1988년, 텍사스 샌안토니오(Texas, San Antonio) 총회의 동성에 관한 결의안

[우리는] 동성애가 하나님의 표준의 도착(perversion of divine standards)이며 자연과 자연적인 열정에 대한 폭행이기에 한탄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반면에, 동성애는 정상적인 생활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다른 모든 죄인들과 같이 동성애자들도 용서를 받을 수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개인적인 믿음을 통하여 승리를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는 성경의 명령을 확인한다(고전6:9-11).

끝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동성애자들을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반면에, 동성애는 정상적인 생활양식이 아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주장한다(레18:22; 롬1:24-28; 딤전1:8-10).[62]

6. 1991년, 조지아 애틀랜타(Georgia, Atlanta) 총회의 인간의 성에 대한 결의안

[우리는] 성에 관한 성경적 표준에, 하나님 앞에서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서의 결혼제도에, 그리고 인간의 삶과 사회의 토대로서 가족에 헌신하는 것을 재확인한다.

나아가서 총회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간의 성의 성경적 표준을 붙들어서 모든 공격들을 물리치고, 성을 즐거움과 인간존재들을 출산하기 위해 수행되어야 할 하나님의 선물로 기리기를 요청한다.[63]

7. 1992년, 인디아나 인디애나폴리스(Indiana Indianapolis) 총회의 미국 보이스카우트를 지원하는 결의안

우리는 미국 보이스카우트에 우리의 격려를 표시하며 그 기관이 본래의 역사적 헌신을 유지하면서 미국의 소년들과 젊은이들 가운데 그 고유한 사업을 계속하기를 요청한다.[64]

---

61) http://www.sbc.net/resolutions/610/resolution-on-homosexuality
62) http://www.sbc.net/resolutions/610/resolution-on-homosexuality
63) http://www.sbc.net/resolutions/984/resolution-on-human-sexuality
64) http://www.sbc.net/resolutions/612/resolution-on-support-of-the-boy-scouts-of-america

8. 1993년, 텍사스 휴스턴(Texas Houston) 총회의 군복무와 시민 권리에서 동성애에 관한 결의안

우리는 동성애에 근거한 정부의 보증, 인가, 승인, 또는 시민권리 이점 등을 제공하는 모든 노력을 반대한다.

나아가서, 우리는 동성애자들의 군복무 금지를 해제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금지조항을 회복하고 강화하는 법안 통과를 의회 앞에 지지한다.[65]

9. 1996년 루이지애나 뉴올리언스(Louisiana, New Orleans) 총회의 동성결혼에 관한 결의안

1993년 5월, 하와이 대법원(the Hawaiian Supreme Court)은 하와이 주가 동성애 커플을 결혼자격에서 제외한 것은 하와이 헌법에 불공평한 차별이기 때문에 하와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이에 우리는 하와이 주 또는 어떤 다른 주나 미연방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고하게 반대한다.[66]

10. 1998년, 유타 솔트레이크 시(Utah, Salt Lake City) 총회의 연방의 동성애 피고용자에 관한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관한 결의안

동성애는 부도덕하며 성경에 반하고(레위기18:22; 고린도전서6:9-10), 전통적인 유대-기독교 윤리 표준에 반하며, 동성애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회를 부패하게 내버려 두시는 징조를 나타내는 것이고(롬1:18-32),

1998년 5월 28일 윌리엄 제퍼슨 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 대통령이 "연방 시민 노동력 안에서 성적지향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하고, 그 정책을 대통령의 행정명령으로 최초로 진술하는" 행정명령에 대한 수정에 서명하였다.

클린턴 대통령의 수정은 성적지향 시민 권리들을 행정명령 11478 (즉, 인종, 피부색, 종교, 성, 민족기원, 장애, 또는 나이) 안에서 차별이 금지되도록 보호한 그룹들의 목록에 추가하는 것이다.[67]

그래서 1998년 6월 9-11일에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에서 모인 대회는 대통령이 먼저 자신의 명령을 철회하지 않으면 의회(Congress)가 법률제정으로 대통령의 그 행위를 무효화시켜 줄 것을 요청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정부가 동성애에 근거하여 보증, 인가, 인정, 승인 또는 시민권리에 이점을 제공하는 일체의 노력들을 반대한다.[68]

---

65) http://www.sbc.net/resolutions/613/resolution-on-homosexuality-military-service-and-civil-rights
66) http://www.sbc.net/resolutions/614/resolution-on-homosexual-marriage
67) 동성애는 "인종, 종교, 성, 민족기원, 장애, 나이" 등과 대등한 차별대상이 아니라는 뜻인 듯하다.
68)http://www.sbc.net/resolutions/616/resolution-on-the-presidents-executive-order-on-homosexual-federal-employees

11. 1999년, 조지아 애틀랜타(Georgia, Atlanta) 총회의 클린턴 대통령의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달 선언에 관한 결의안

합중국의 대통령이 우리 주님의 일천 구백 구십 구년의 6월 달을 게이와 레즈비언 긍지의 달로 선언한 사실에서 보고, 대통령의 이 선언이 우리나라 안에서 동성애 행동과 레즈비언 성행위를 향해 미국인들이 관용을 보여주기를 요청한 것만이 아니라, 그러한 행동들을 긍정하고 축하하며 영광스럽게 하기를 요청한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서,

성경은 동성애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혐오스럽고 수치스러운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사실에서 보면 ...

우리 대통령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그를 책망하도록 강권하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역행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수백만의 시민들이 대통령의 선언을 거부하거나 아니면, 자기들 자신 속에 깊이 간직한 신앙의 확신들을 거절하는 입장 중 그 어느 것도 지킬 수 없게 만드는 것으로서, 대통령의 최고도의 (동성애) 공적(public) 지지선언은 우리를 공개적으로(publically) 한탄하게 만든다고 결의한다.[69]

12. 2005년, 테네시 내슈빌(TN, Nashville) 총회의 자식들을 교육하는 것에 관한 결의안

자식들은 주님께로부터 위탁받았으며, 우리 국가의 장래와 우리의 영적 유산을 대표한다는 것이라는 사실에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인 부모들이 어디서 어떻게 자기 아이들을 교육할지에 관하여 기도와 함께 정보가 제공된 결정으로 자기들의 책임을 충분하게 끌어안을 것을 권한다. 그들이 공립, 사립 또는 홈 스쿨을 선택하든지간에, 그리스도를 따르는 충분히 헌신된 자로서 살만큼 온전하게 갖춘 경건한 남자들과 여자들로 양육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들의 육체적, 윤리적, 정서적 및 영적인 안녕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결의한다.[70]

13. 2006년, 노스캐롤라이나 그린보로(NC, Greensboro) 총회의 결혼보호법(DOMA) 수정에 관한 결의안

하나님은 가족을 인간의 기본적이고 가장 영향력 있는 사회적 제도로 세우시고 각 인간의 가족이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으로만 시작하도록 명하셨다(창2:18-25; 마19:4-6; 막10:6-8; 히13:4).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판사가 그들에게 소위 말하는 "동성결혼"

---

69) http://www.sbc.net/resolutions/617/resolution-on-president-clintons-gay-and-lesbian-pride-month-proclamation

70) http://www.sbc.net/resolutions/1142/on-educating-children

을 받아들이도록 강요하기 전에, 가능한 빨리 오직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으로만 결혼을 규정하는 법령이 아직 제정되지 않은 저 주들(states)을 격려한다.[71]

14. 2011년, 애리조나 피닉스(AZ, Phoenix) 총회의 결혼보호법에 관한 결의안

1996년 결혼보호법(The Defense of Marriage Act)이 제104차 의회(Congress)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되었고(하원, 342-67; 상원, 85-14), 그 결혼보호법이 1996년 9월 21일에 윌리엄 J.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법령이 되었으며, 결혼보호법은 결혼, 배우자, 남편 및 아내라는 용어들이 합중국의 법에 적용할 목적으로 규정되었고, 그 결혼보호법은 결혼을 "오직 남편과 아내로서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법적인 결합"으로 규정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합중국 의회가 그 법을 통과시키고, 그 주들(the states)이 결혼은 배타적으로(exclusively)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것이라고 규정하는 헌법적 수정을 비준하기를 거듭 요청하기로 결의한다.[72]

15. 2016년, 미주리 세인트루이스(MO, St. Louis) 총회의 성경적인 성(Sexuality)과 양심의 자유에 관한 결의안

우리는 연방정부가 신앙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자기들의 확신 때문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장하는 수정헌법 보호조항을 통과해 주기를 요청하고,

우리는 그들의 양심이 자기들을 비성경적인 결혼을 인정하거나 조장하거나 참여하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유로, 일자리들, 전문직들, 사업들, 성직자들, 학교들 및 개인적 자유들이 위협을 받게 될 사람들과 더불어 일치단결하여 맞서고 있다.

우리는 부흥을 위한 기도와 더불어,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의 관계로서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인식과 성(gender), 양심의 자유, 그리고 제약받지 않는 신앙의 자유를 향한 하나님의 설계(design)에 대한 인식으로 되돌아가도록 기도에 헌신해야 한다.[73]

본 조사자는 먼저 40년간의 긴 세월 동안 지치지 않고 시종일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성실하게 그 말씀을 따라서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이라는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때때로 당시의 두 현직 대통령도 하나님의 권위를 거역할 때, 사랑으로 책망하는 용기를 보여준 것을 비롯하여 주정부와 사법부, 미연방대법원을 향해서도 바른 소리로 그들의 오류를 지적하면서 국가사회와 국민 및 성도들을 바른 토대 위해 세우려

71) http://www.sbc.net/resolutions/1152/on-the-marriage-protection-amendment
72) http://www.sbc.net/resolutions/1212/on-protecting-the-defense-of-marriage-act-doma
73) http://www.sbc.net/resolutions/2264/on-biblical-sexuality-and-the-freedom-of-conscience

고 노력한 남 침례교회에 찬사를 보낸다.

특히 미래 세대를 위한 진리의 교육에 무게를 둔 지속적인 노고에 감사를 표한다. 동시에 그들의 성경적 신학적 입장이 바르고 의연함에 기쁨을 나눈다.

다만 옥에 티처럼 그들이 성경의 절대적 진리를 강조하면서 동시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거나 하지 않는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절대 진리의 현실적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음을 감지할 수 있는데, 이는 우리가 다음에 함께 더 논의해야 할 사안이면서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려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다.

IV. 나가는 말

우리가 미국 주요 개신교회들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동성결혼을 찬성하게 되었는지 완전하지는 못하지만, 연대기적·주제별·교단별 흐름 등 삼중적인(threefold) 관점을 하나로 연결하여 이해하려고 한 시도가 그런 대로 어느 정도 전반적인 파악에 도움이 되었으리라 믿고 싶다. 무엇보다도 찬성과정과 반대선언을 자세히 대비해 보면 찬성과정만을 정리해 보는 것보다는 단순한 한 편의 지식체계로 인지하는 것을 넘어서서 어떤 역동성을 감지하게 될 것이라고 여긴다.

본 조사자는 이 조사과정을 통해 동성결혼에 찬성하는 흐름 속 저변에 자리 잡고 있는 거짓된 어둠의 정체를 파악하는 한편, 동성결혼을 단호하게 초지일관 반대해 온 흐름을 통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더불어 성경외적인 증거, 곧 자연적(과학적)·사회적(윤리적)이며 객관적인 보편성과 개인의 인격을 진정으로 존중하는 설득력을 찾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 지면 밖으로 나가기 직전에 한 마디만 더 한다면, 저들의 대처 방법에 비하여 우리 결가연의 진영은 훨씬 더 복합적인 전장(multiple battlefield)을 펼칠 준비를 하고 있는 동시에 그 전투에 승리할 수 있는 일치단결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한다(아직 초기단계이기는 하지만).

우리의 대장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곁에서 늘 함께 하시면 우리의 선한 싸움을 도울 준비를 하고 계시면서 우리를 승리로 인도하실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다음 말씀을 의지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앎이니라(고전15:57-58)